

4 배리어프리(무장애 캠퍼스)



서울캠에서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장소 (①중앙도서관에서 문과대로 올라가는 언덕길 ②생과대 출입로 계단 옆 경사 ③흡연구역 옆 긴 경사 진입로 ④생과대 진입로) (사진=이봄·허지영 기자)

# 서울캠 장애인 통행권 새로운 검토 필요 “배려 아닌 당연”

이봄 기자 lbom.kr@khu.ac.kr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서울】지난 2월 국립특수교육부가 공개한 ‘2020 장애대학생 교육 복지지원 실태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학교 양 캠퍼스는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2015년 동일 평가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험에 비춰보면 아쉬운 결과일 수 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는 선별, 교수학습, 시설설비 항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그 중 시설설비 항목에서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활동 공간을 확보했는지 평가한다. 우리학교가 받은 우수 등급은 전국 대학 423개 캠퍼스 중 상위 22%를 의미하지만, 교내 장애학생의 현실과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다. 비대면 학기가 연장돼 한적한 지금이 우리학교 캠퍼스 배리어프리화 발전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이에 우리학교 구체적인 교내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캠 내부 장

애인 통행권의 현주소를 되짚어보았다.

## 휠체어에겐 벽찬 경사로

경사가 가파른 언덕은 휠체어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전동 휠체어가 아닌 수동 휠체어라면 도우미 없이 혼자서 오르기 힘든 경사가 많았다. 평화의 전당으로 가는 오르막길, 교시탑에서 space21 1층으로 올라가는 언덕, 미술대학으로 올라가는 언덕 등이 그 예이다. 차도와 인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휠체어가 통행하기에는 더욱 위험해 보였다. 교내 차량 유도원 김봉룡 씨는 “휠체어 옆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말했다.

## 위험한 출입문 접근로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보행로에서도 불편함이 있다. 치과대학의 경우 출입구에 경사로가 존재하지만 그 앞에는 재포장이 시급해보일 정도의 깊게 패어진 흠이 있었다. 보

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크기의 흠도 휠체어의 균형을 잃게 할 수 있기에 휠체어 통행에는 큰 방해물이 된다. 문과대학의 경우 출입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짧은 경사로와 도로가 심하게 울퉁불퉁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비슷한 문제는 정경대학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경대학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총 3개이지만 그 중 2개는 경사로 없이 계단만 있다. 계단이 없는 유일한 입구 앞에는 모래주머니가 쌓여있었다. 휠체어 이용자의 유일한 통행로도 가로막힌 것이다. 중앙도로에서 생활과학대학 출입문으로 가기 위한 도로 사정은 더욱 심각해보였다. 흡연구역 옆 긴 경사로 앞에는 깊은 흠이 여러 군데 패어 있다. 더 붙어 얇은 계단이 줄지어 있었고 그 옆에는 계단 사이를 아스팔트로 메워 만든 경사로가 있었다. 하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분적으로

깨져있었고 그로 인해 단차가 생겨 휠체어 통행에는 위험이 있었다.

##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서울캠 문과대학에는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한 상태다. 휠체어 이용자가 문과대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옆에 위치한 이과대 서관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후 문과대와 연결된 외부 통로를 통해 들어와야 한다. 문과대학 행정실은 “이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전공자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강의실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이기에 대학본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현재로서는 예정되어있

지 않다”고 밝혔다.

## 관리 미흡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화장실도 관리가 미흡했다. 현재 서울캠의 스페이스21,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장애인 화장실이 구축되어 있는 건물은 총 25개로, 이는 전체의 약 67%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직접 취재한 결과, 장애인 화장실이 잠겨있거나 변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스페이스21 건물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남자 장애인 화장실은 안에서 잠겨있어 사용이 불가능했다. 중앙도서관에 있는 여자장애인 화장실은 테이프를 변기를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었다. 기자가 관리자에게 막아둔 이유를 묻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고장 때문일 것이라며 고쳐놓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캠 총학은 지난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점자유도블록 추가설치, 휠체어 전용 책걸상 설치, 경사로 추가설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 학생 권리국장 손하늘(사회학과 2019) 씨는 “교내 배리어프리화 사업은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며 “1학기 중으로는 장애학 세미나 진행과 배리어프리화 TF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배리어프리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점자유도블록 추가 설치, 안내 촉지도 재설치, 휠체어 전용 책걸상 추가 구비 등의 시설 배리어프리화를 준비 중에 있다”며 “안내 촉지도는 오래된 공간 정보를 담고 있어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내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한 SNS 대체 텍스트 매뉴얼도 제작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학내 카페나 매점 및 편의점용 보완대체의 사소통 도움 그림판 제작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박주석(한 의학과 2015) 씨는 “현재 우리학교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며 “캠퍼스의 배리어프리화는 인권이나 숭고한 가치를 지니지 않아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은 없다”면서도 “매 학기 장애학생 간담회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시설 관련 의견은 부서에도 전달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1층 장애인여자화장실의 변기가 테이프로 막혀있다. (사진=이봄 기자)